

# 우리 민족의 어머니 나무, 버들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나무를 꼽으라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를 선택한다. 버들은 한참 뒤에 가물가물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도적으로 형성된 관념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나무를 뜻하는 한자 송(松)은 나무 중 으뜸가는 벼슬을 뜻하는 것이라 국가와 왕에게 늘 충성하고 지조를 지키는 상징을 담고 있다. 생물학적으로도 상록인 소나무는 늘 푸르른 충성을 상징하고, 줄기가 한번 잘리면 움조차 나지 않아 한번 충성한 왕에게 지조를 지키는 선비를 상징하기에 충분한 속성을 가졌다. 그러면 국가가 나타나기 전인 부족사회 시대에도 우리 민족은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어머니는 유화부인, 즉 버들 부인이다. 만주족에게 버들은 천지개벽과 인간 창조의 여신이다. 옛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에게 쫓기던 오누이는 우물가에 있던 커다란 버드나무 위로 피했다. 그래서 필자는 버들을 우리 민족의 어머니 나무로 복권시키고자 한다. 소나무도 좋지만, 특히 버들은 우리 민족의 모성을 나타내는데 제격이다.

## 모성과 여인의 지혜를 나타내는 버들

버들은 모든 생명의 모성(母性)인 물이 있는 곳, 즉 수원(水源)의 지표로서 물가에 잘 자라나고 수향목(水鄉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유화부인의 아버지는 물의 신, 하백(河伯)이다. 버들의 학명인 Salix도 켈트어의 sal(가깝다)과 lis(물)의 합성어라 동서양 할 것 없이 버들은 물을 나타낸다. 그래서 물고기 이름에는 버들가지, 버들개, 버들매치, 버들붕어, 버들치에서 보듯이 버들이 유난히 많이 들어간다.

여기서 굳이 버드나무라 하지 않고 버들이라 한 것은 버드나무를 포함한 모든 버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버드나무는 생물학적으로 Salix koreensis Andersson 한 종을 지칭하지만, 우리 민족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버들과 다 관계를 맺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곡식을 까부는 키투를 만들 때 쓴다고 키버들이라 했다지만, 어디 이뿐이겠는가? 소쿠리 등 어머니 손이 가는 곳에는 버들가지로 만든 물건이 많았을 것이다.

옛날 시를 짓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라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 중 섬농(織穠) 하나에만 여인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 이 시품에서는 "버들 그늘 밑으로 오솔길은 굽어들고(柳陰路曲)/ 꺾꼬리는 여기저기 재잘대네(流鶯比隣)"로 시작하여 여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냥 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 그래서 버들은 여인의 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 민담에는 신라 김유신과 고려 태조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 등 숭한 영웅들이 갈증이 나서 급하게 물을 찾으려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물을 떠주며 버들잎을 띄워준다. 이것은 목마르다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버들잎을 붙여가며 천천히 먹으라는 지혜의 아이콘이다.

## 생명력과 치유 능력 가져

버들은 생명력이 강하다. 큰 나무들은 물이 많고 햇볕이 좋은데서 잘 자라지만, 전국 각지의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호랑버들, 백두산 꼭대기의 콩버들을 보면 그 생명력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멀리 북극에 가까운 동토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많다. 또한 봄에 일찍 잎을 내고 가을에 늦게까지 잎을 달고 있어 잎의 생명도 길다. 자르고 또 잘라도 움이 다시 나고 불이 난 습지에도 가장 먼저 자라나는 버들의 재생력은 이별할 때에도



글 신준환

국립수목원장  
kecology@forest.go.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장, 산림보전부장 등을 지냈다.



죽지 말고 살아 돌아오라는 정표가 되었다. 엄혹한 비무장지대에 불이 나 모든 나무가 타버린 산골짜기에 가장 먼저 살 자리를 만드는 버들이나, '본초강목'에서 "세로로 두든 가로로 두든, 거꾸로 꽃든 바로 꽃든 모두 산다"고 한 버들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가 느껴진다.

이런 버들은 치유의 능력도 가진 것으로 나온다. 고려 불화를 보면, 무한한 자비로 중생을 제도할 것을 서원하고 중생의 병고를 덜어주는 관음보살의 경상이나 수월관음도에는 버들가지로 오른 손에 들고 있거나 정병에 꽂아두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나 로마인들도 버들잎을 씹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열이 내린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것은 버들에 들어있는 살리실산 때문인데, 이것이 나중에 아스피린으로 발전한다.

버들가지는 악마를 퇴치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제민요술'에서는 "정월 초하루 아침에 버들가지를 꺾어 문간에 달아두면 백가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고, 단군 신화의 계열인 게세르 신화에서는 버들가지로 악마를 물리친다. 특히 게세르 신화에서는 하늘나라에서 만든 첨단 병기인 철기로 여러 악마들을 차례차례 물리치는데, 마지막 악마는 너무 힘이 강하고 하늘나라의 첨단 병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졌다. 이 악마는 게세르가 하늘나라의 칼로 베어도 다시 붙을 뿐 아니라 더 강한 무기로 게세르를 공격하여 게세르가 거의 다 죽어가는 찰나에 하늘나라의 할머니가 구해 준 버들가지로 이 악마를 공격하여 이길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신화를 읽으면서 이 할머니에게는 모성을, 강철도 이긴 버들가지에서는 BT(biotechnology)를 떠올렸다.

### 다윈 사회의 아이콘

버들은 움이 잘 돋고 재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대과학의 엄정성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도 해준다. 필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버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의심했었다. 현장에 가서 보면 100년도 안될 것 같은 나무를 600년이 넘었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증언은 원래 저 위에 살았던 나무가 이리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 말은 원래 나무가 죽고 그 나무의 움이 나고, 다시 죽고 움이 나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했다는 말이다. 그러니 지금 자라는 나무만으로 그 나이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번식력은 성경에도 나온다. "버들을 추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레위기 23:40)", "나의 정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풀과 같이 솟아나며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이사야 44:3-4)" 여기서는 거의 풀처럼 솟아나는 버들의 번식력이 자손 번성과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버들은 자기들끼리도 잘 어울려 자란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나,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다양한 부족들이 어지럽게 경쟁하고 있던 시대에는 버들의 왕성한 움돋이가 혼돈 속에서 살아남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한다. 또한 국가가 성립되고 신분질서가 고착된 후에도 시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버들을 그리워하며 노래하였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기생 홍랑은 떠나는 최경창에게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는 그리움을 담은 시조를 보냈다고 한다. "뫼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님의 손에/ 자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곧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그러나 유교사회가 지향하는 안정된 왕권사회에 윤색된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물을 때 거의 대부분 소나무라고 대답한다. 또한 포기할 줄 모르는 어머니나 지혜를 자아내는 버들잎 여인이 아니라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녀"가 된다. 이런 변색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길을 열어낼지 모르고 소나무도 참 좋은 나무지만, 다윈 사회를 지향하는 요즘에는 여러 부족이 번성하던 사회를 지탱하는 이미지를 가진 버들의 복권도 필요해 보인다.

물의 정화 기능이 있는 버들은 다른 생물들과도 잘 어울린다. 앞에서 물고기 이름에 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물에 살지 않는 강아지도 들어가 이번에는 버들강아지라고 한다. 버들과 꾀꼬리는 생태학적으로도 잘 어울리지만, 인문학적으로도 수명이 길어, 유화부인의 손자 유리왕이 "활활 나는 저 꾀꼬리"로 시작하는 황조가를 지은 이후에 2000년간 우리 문학과 그림의 소재가 되었고, 심지어 남도 민요 '남원산성'에는 "능수버들 휘늘어진데, 꾀꼬리는 짹 지어" 날아다닌다. 다윈 사회의 화합의 상징인 버들의 복권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